
- 제2기 일자리위원회 -

일자리 복지분과 제3차 회의결과

「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보고

신규 의제 제안 및 종합논의 등 「일자리 복지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에 따른 결과 보고사항임

□ 회의 개요

- (일시/방식) '21. 8. 12.(목) 15:00~16:30 / Zoom 화상회의
- (참석자) 총 14명
 - 위원(11) : 김○○, 김○○, 윤○○, 김○○, 손○○, 오○○, 임○○, 정○, 최○○, 안○○, 이○○
 - 시(3) : 일자리경제과장(전유도), 가족다문화과 외국인생활지원팀장(최윤선), 가족다문화과 다문화가족팀 주무관(이지현)
- (주요내용)
 - 일자리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본회의) 결과 보고
 - 신규 제안 의제 논의 및 검토 (제안자 : 김○○ 부위원장)
 - * (의제명)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다문화배경 기업전문가 양성 사업」
「다국적 맞춤형 구매 대행 창업 지원」

□ 주요 논의내용

①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 제안사항 > (제안 : 김○○ 부위원장)

- (제안배경) H 및 F-4비자를 갖고 가족들과 동반 입국한 자녀들이 무상 보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작년에 보육 보조교사로 양성되어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취업 실적이 저조함.
- (제안내용) 보육 보조교사 채용, 보육비 지원, 보육 시설 신설 등 다양한 방안 제시

< 의제에 대한 종합토론 >

- 취업과 연결된 문제라기보다는 자녀들 보육에 대한 문제로 느껴짐 (이○○ 위원)
- 초중고등학교에는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5명 이상이면

다문화 선생님을 한 명씩 배치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에 다니는 다문화 아이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데도 도와줄 사람이 없음. 이중 언어가 가능한 보육보조교사를 배치 한다는 부분에서 적극 찬성함(오○○ 위원)

- 지원금 자체가 마련되지 않는 한 보조 교사를 채용하더라도 부모들이 보조교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가 우선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듯.(최○○ 위원)
- 보육료 지원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지 않을까 싶음. 보육교사 활용 방안은 이중 언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 보조교사로 채용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손○○ 위원)
- 시 보육정책과에서 국적 미취득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보육 시스템을 더한 보육료 지원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음.

김기범 부위원장께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신 재외동포 대상 보육 서비스 사업은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작년 양성된 결혼이민자 보육교사를 취업시키기 위해 어린이집 연합회에 협조 요청을 했지만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교육시설 운영이 원활하지 못해 채용이 힘든 상황. 앞으로는 보육보조교사 양성 과정을 축소하고 전문 통번역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확대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임.(최윤선 외국인생활지원팀장)

↳ 주민 참여 예산 신청한 사항이 통과되면 이쪽에서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음(김○○ 부위원장)

② 「다문화배경 기업 전문가 양성 사업」

< 제안사항 > (제안 : 김○○ 부위원장)

- (제안배경) 이중 언어의 장점을 갖고 있는 다문화 2세들이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안내용) 다문화 2세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번역 등의 능력을 갖춘 지역 전문가로 양성

< 의제에 대한 종합토론 >

- 제안이 포괄적이고 영역이 넓은 것 같은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턴트 양성 과정인지(김○○ 위원)
 - ↳ 컨설턴트는 아니고 일반 가로등에서 led 가로등으로 바꾸기 위한 led를 중국에서 사올 때 결혼 이민자를 통역가로 채용하여 더 저렴하게 구입한 사례처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 것임(김○○ 부위원장)
-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결혼이민자의 이중 언어를 활용하여 운영되는 과정은 3개 과정 100여 명임. 이들을 양성 후 기업, 공공기관 등에 파견하여 활동비 지원까지 하는 시스템 운영 중이지만 이들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따라서 현재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 모형 개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결과가 나오면 직업 훈련 교육 과정에 응용하고 시행할 계획(이○○ 주무관)

③ 「다국적 맞춤형 구매 대행 창업 지원」

< 제안사항 > (제안 : 김○○ 부위원장)

- (제안배경) 코로나로 인해 해외 구매 대행 이용자 및 서비스 기업이 늘어나고 있음
- (제안내용) 다문화 가족 구성원 및 중도입국 청소년 등 취업취약 계층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문가로 양성

< 의제에 대한 종합토론 >

- 제안서 내용을 보면 해외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는 말인지 어떠한 틀을 설치하기를 원하는 것인지 의미가 모호함(김○○ 위원장)
- 이런 양성 사업은 시청에서 기존에 하는 사업도 있고 민간 자율 기능에 맡겨도 될 것 같음(손○○ 위원)
- 창업분과나 고용분과 등 다른 분과에 자문을 구하거나 연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윤○○ 간사)

□ **회의 결과**

○ 재논의 결정(2건)

- 「외국인주민 자녀 대상 보육 서비스 및 보육 일자리 창출」
- 「다문화배경 기업 전문가 양성 사업」

○ 보류 결정(1건)

- 「다국적 맞춤형 구매 대행 창업 지원」

□ **향후 계획**

- 제2기 일자리 복지분과 제4차 회의 개최 : '21. 9월중